

서울 용산구 한남동

'콘서트 제왕'... 오케스트라+록=갈채 폭발

어린 시절 주목받기를 좋아했던 이승철은 서대문 음악다방 음악 콘테스트에서 1등을 차지하며 노래 실력을 뽐냈다. 이후 밴드를 결성해 여러 음악 축제에서 다른 밴드와 대결하며 실력을 키웠다.

그러다 록 밴드 '부활'에서 건반을 담당하던 친구를 따라간 연습실에서 매니저 눈에 띄어 오디션을 보게 됐고 리드 보컬로 발탁돼 1986년 1집 'Rock will Never Die'로 데뷔했다.

부활 1집은 타이틀곡 '희야'를 비롯해 수록곡 '비와 당신 이야기' 등의 인기를 바탕으로 13만 장이라는 판매를 기록했다. 시작이 좋았지만 김태원의 마약 복용과 이승철의 팀 탈퇴로 1987년 해체 수순을 밟았다.

이후 이승철은 1989년 솔로로 전향해 1집 '안녕이라고 말하지마'를 통해 각종 차트에서 정상에 오르는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1989년 10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가수 인생에 암흑기가 찾아왔다. 해당



사건으로 1991년 2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와 함께 1990년부터 1995년까지 방송활동 금지 처분을 받았다.

자숙 시간을 가진 뒤 2002년 부활의 스페셜 음반인 8집 앨범 '새, 벽'으로 돌아와 약 30만 장의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재기에 성공했다.

이후 솔로로 복귀해 2004년 '긴 하루', 2006년 '소리쳐', 2007년 '사랑한다', 2009년 '사랑 참 어렵다', 2013년 'My Love', 2015년 '시간 참 빠르다' 등의 앨범을 발매해 사랑받았다.

지난해 6월에는 싱글 앨범 '비가 와'로 35주년 기념 앨범 '우린' 이후 3년 만에 돌아와 팬들의 호응을 얻었다. '비가 와'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아쉬움을 담은 곡으로 작사와 편곡에 직접 참여해 완성도를 높였다.

늘 아낌없이 쏟아붓는 공연으로 정평이 난 이승철은 18일 KBS2 뮤직 토크쇼 '더 시즌즈-박보검의 칸타빌레'에 출연해 "공연 때 30곡 정도를 게스트 없이 꼭 부른다. 노래를 많이 부르는 게 가장 반응이 좋더라"며 공연 철학을 밝혔다.

'더 시즌즈-박보검의 칸타빌레'에서 관객들의 신청곡을 즉흥으로 받아 '말리꽃' '서쪽 하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등을 가창하며 깊이와 내공있는 무대로 뜨거운 갈채를 받았다.

콘서트 제왕으로 불리며 현재까지 공연 유료 누적 관객수 270만 명 이상이라는 대기록을 세운 그는 1000만 장 이상의 앨범 누적 판매량을 달성했다. 또한 매해 30회

이상 전국투어를 다니며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을 자랑한다.

지난해 10월부터는 데뷔 38주년 기념 전국투어 콘서트 '오케스트라2'를 진행하고 있다. '오케스트라2'는 오케스트라와 록이 어우러진 공연으로 독창적인 사운드를 자랑한다. 플라잉 사운드 시스템 연출을 통해 보다 입체적인 음향을 섬세하게 그려내며 관객들의 눈과 귀를 모두 사로잡을 명품 콘서트를 완성했다.

그는 SBS 라디오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에서 전국투어 공연 비하인드를 전하며 "이번 투어는 규모가 상당하다. 스태프만 20명이 넘고 공연장마다 오케스트라 인원이 다르다. 적게는 40명에서 많게는 60명이 함께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연을 하면 남는 게 없다. 하지만 관객들에게 최고의 무대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남다른 공연 철학을 전했다.



이승철

가수

LSC엔터테인먼트

공연은 26일 경북대 대강당(대구), 5월24일 천안예술의전당(천안), 6월1일 울산문화예술회관(울산), 6월7일 충남대 정심화홀(대전), 6월21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전주), 6월28일 군포문화예술회관(군포), 7월5일 경기아트센터(수원)로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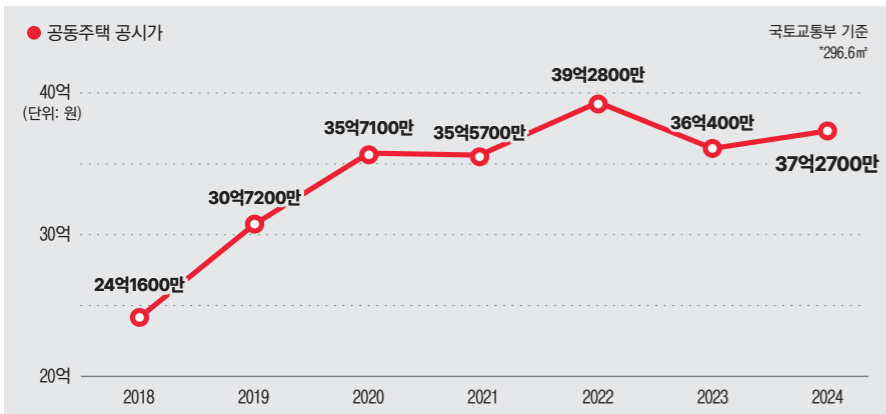
매번 파워풀한 무대로 관객을 매료시키는 그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한남더힐(사진) 한 호실을 2015년 7월 77억 원에 매입했다. 해당 호실은 공급면적 332.81㎡(약 100.67평)·전용면적 240.963㎡(약 72.89

평) 규모로 최근 실거래가는 2024년 4월 매매된 120억 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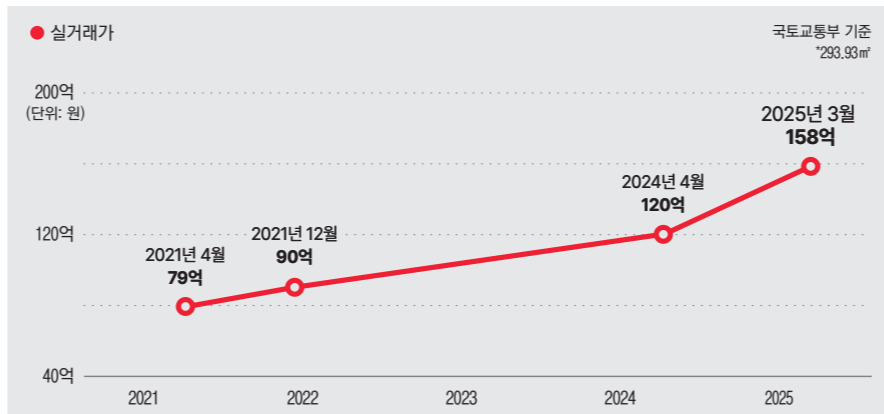
소유한 호실은 한남더힐에서 가장 큰 평형인 펜트하우스다. 내부 정원과 넓은 테라스가 마련돼 아파트임에도 전원주택과 같은 개인공간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남더힐은 우수한 환경을 자랑하는 단지로 피트니스센터·수영장·사우나·스크린골프장·카페·독서실·게스트 하우스 등 커뮤니티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주변에 산책 코스가 잘 조성돼 쾌적한 자연 환경을 누릴 수 있다. 이동원 기자 dwlee@skyedail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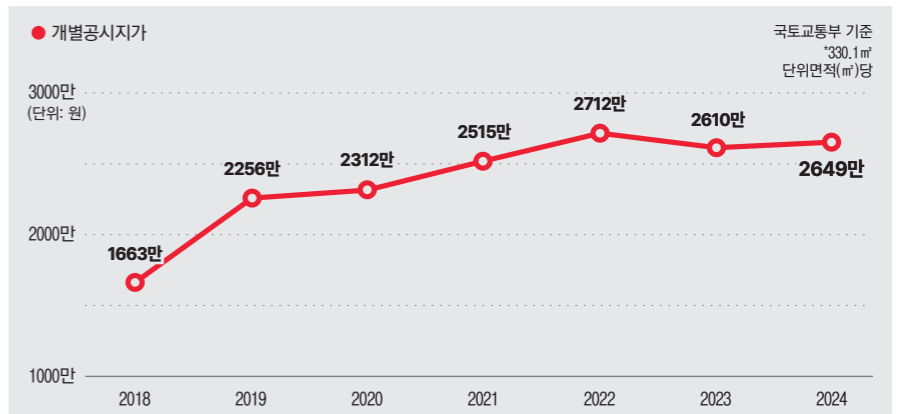
제이하우스



나인원한남



빌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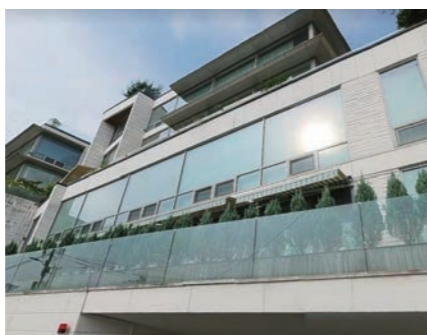


임상민 현대상식품BU 전략담당중역부사장

임상민 대상 식품BU 전략담당중역 부사장은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의 차녀이자 임세령 부회장의 여동생이다. 이화여대 사학과와 미국 파슨스 디자인 스쿨을 나와 런던 비즈니스 스쿨 경영학석사(MBA) 학위를 받았다. 2007년 대상그룹 계열사 UTC인베스트먼트 투자심사부 차장으로 입사해 2009년 전략기획팀 차장을 맡아 경영혁신을 이끌었다. 2012년 대상 전략기획본부 부분부장으로 선임돼 신사업 발굴과 글로벌 사업을 수임했으며 2014년 1월 상무, 2016년 12월 전무에 이어 2023년 3월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후 대상아메리카 부사장·대상홍콩 중국사업전략담당을 거쳐



글로벌 전략가로 초석을 다졌다. 기존 계열사 흡수합병 및 사업구조 재편을 통해 경영 효율 제고, 미래 먹거리 확보,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전략과제 추진, 글로벌 생산기지 구축 및 전략적 인수합병(M&A) 등의 성과를 냈다.



박세훈 현LTS 회장·더시그널하우스 회장

박세훈 LTS 회장 겸 더시그널하우스 회장은 덕수상고 졸업 후 대학 진학에 실패하자 참의 장사 등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았다. 공군에서 3년간 복무한 뒤 한진그룹에서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중앙대 국제경영대학원에 진학해 석사 학위를 받은 후 한진중공업 마닐라지사에서 2년간 근무하며 해외 경험을 쌓았다. 1986년 가정용 및 산업용 에어컨의 핵심부품인 열교환기 전문 제조업체 LTS를 설립하고 LTS그룹코리아·레오엔터테인먼트·타이도타이청라·재단법인 도진화 등 여러 회사와 재단을 이끌고 있다. 자회사인 도타이를 통해 프리미엄 요양원 더시그널하



우스를 운영하면서 국내 시니어타운 사업에도 진출했다. 독실한 원불교 신자인 그는 2022년 7월 유린보은동산 이사장에 취임했다. 유린보은동산은 원불교의 사업 목표인 교화·교육·자선을 사회 현장에서 실천하는 사회복지법인이다.



차두리

차두리 화성FC 감독은 '한국 축구의 전설'로 불리는 차범근의 아들이다. 대학생 신분으로 2002 한일월드컵에서 참가해 주전으로 뛰지는 못했지만 뛰어난 신체 조건과 빠른 스피드를 앞세워 '차두리'와 '터미네이터'의 합성어인 '차미네이터'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해 독일 레버쿠젠으로 건너가 공격수로 처음 프로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스코틀랜드 명문 프로축구팀인 셀틱FC를 거쳐 2013년 서울FC로 국내에 복귀해 뛰어난 대인 수비 능력을 과시했다. 2015년 11월 FC서울에서 선수 생활을 마무리한 뒤 2016년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 전력 분석관을 시작으로 2017년



국가대표팀 코치, 2018 러시아 월드컵 우리나라 경기분석관, 2021년 FC서울 유스강화실장, 2023년 국가대표팀 테크니컬 어드바이저와 코치 등으로 활약했다. 지난해 12월 창단 12년 만에 프로축구에 진출한 K리그2의 화성FC 감독으로 선임돼 지휘하고 있다.



대동택견 전수자 과정 1기 모집 안내

1. 택견 어원

택견의 어원은 태갈이다. <태>는 '태어나다·중생하다'는 뜻이고, <갈>은 '가르치다·수련하다'는 뜻으로 이를 합치면 '인간에서 신으로 중생하는 수련'을 말한다. 씨름이 오랜 세월 동안 씨갈 → 씨가름 → 씨겨름 → 씨름으로의 용어 변천사가 있었듯이 택견도 태갈 → 태가름 → 태겨름 → 태견(태견) → 택견으로의 용어 변천사가 있었다.

2. 대동택견 소개

- 태고사에 나오는 천제 환인이 아들 환웅에게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데 사용하도록 준 천부인(天符印) 원리에 입각한 고유 무예(위대 택견 기능)
- 무예 역사와 전승 계보(삼정조 시대 - 북부여 - 삼국시대 - 일본 천황가 전래 - 신라삼랑 원의광(대동 택견 중시조) - 원정의(35대) - 덕암 최용술(36대) 환기분주 - 한풀 김정윤(37대)) 명확한 전통 무예
- 한민족 정서에 녹아드는 우아하고 수려한 몸짓과 가장 방대하고 강력한 기술 체계를 갖춘 완전 무예(아래대 택견 기능)

3. 전수자 과정 개설 목적

- 단군 임검의 세상을 널리 아름게 하라는 홍익인간 이념 실천
- 삼정조 시대부터 개기까지 수련한 전통 태갈 수련법(위대 택견) 전수- 단군 임검 탄생역사에 나오는 환웅(桓雄)·웅녀(熊女)·신단수(神檀樹)·호(虎)·웅(熊)·애(艾)·신(蔞)·굴(窟)·백일(百日)은 인간이 신으로 중생하는 태갈 수련법이나 후대에 한자로 기록되면서 인수(人獸)의 역사로 왜곡됨
- 조선시대 송문천후(崇文殿後) 정책과 일제의 민족혼 말살 정책으로 사라진 택견의 맨몸 기술 보강과 무기술 복원(아래대 택견)

4. 전수자 과정 모집 일정

- 주 최: 대동택견협회(협회장 신성준)·명지대 명상무예학과(우종웅 교수)
- 장 소: 명지대학교 미래관 6층
- 일 자: 2025.3.29.~6.14(12주) 매주 토요일 09:00~12:50
- 인 원: 선착순 10명
- 대 상: 체력훈련(힘)이 아닌 무예기법(기운) 원리를 익히는 수련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
- 등 록: 명지대학교 홈페이지 → 미래교육원 → 등록안내 → 전문교육과정 → 신규학습자 (원서접수 바로가기)
- 문 의: (02) 300-1816